

# 민주, 中 수출 리스크에 “1호 영업사원 어떤 생각인지 국민 걱정”

### “우리 기업과 경제에 도움 되는지 물어야 할 상황”

### “리스크 줄이는 것이 목표...한국만 엉뚱한 방향”

더불어민주당이 대중국 수출리스크를 점검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오전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중국 수출·진출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외교 문제는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우리는 과연 그에 부합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외교는 국익 중심의 실용적 태도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경제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우리 기업과 경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척되는지 한 번 짚은 물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은 수출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인데, 최근의 경제 상황 매우 나빠지고 있다. 경제 상황 나빠지다 보니 국민들의 민생도 매우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경제 전체가 나빠지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세계 경제와는 약간 다른 현상을 나타내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 차지했던 북방경제, 중국과의 교역 경제, 중국에 대한 경제 진출 상황이 급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현재 국가간 관계가 갈등 국면 치달으며 생긴 현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미국, 일본, 유럽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치권, 그 중에서도 민주당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지적해주시면 저희도 가능한 방안 찾아 최대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사실 어려운 자리일 텐데,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저희 민주당의 정책 결정이나 의정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긴급간담회에는 김성주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한정 의원, 기획재정부위원회 간사 신동근 의원, 박성준 당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이상선 주성 엔지니어링 부회장, 임석원 동국제약 실장, 김희철 바이오트리 회장, 문계준 동아엔지니어링 대표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대중 수출이 비상이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반도체 부진도 문제지만, 결국 한중 관계를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업사원 1호 분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영업사원 1호가 지금 중국 사업을 하고 있는지, 중국과의 관계 리스크를 줄이자는 것이다. 한국만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성주 의원은 “안보와 경제가 같이 간다는 것이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중무역 수출이 굉장히 비중 높은 나라였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가 최

대 흑자국가였다. 다만 올해 들어서 최고 의 적자 국가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대비 1분기 대중 수출이 1위에서 4위 내려앉은 반면, 미중 패권경쟁 당사국인 미국이 오히려 중국 수출 1위를 차지했다. 얼마만큼 국익이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척도가 돼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의원은 “외교안보적 리스크의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저희가 기재위에서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했을 때 특단의 대책을 내어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과 문만 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오늘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이 부분을 삼일 위 활동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용일기자

## 민주, 육일기함정 입항 비판·오염수 시찰단 보고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일본 육일기 자위대 함정 입항에 대한 비판과 후쿠시마 시찰단의 국회 보고를 촉구하는 등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유정주 원내부대표는 “1592년 임진왜란은 왜군이 부산진을 공격하면서부터였고 구한말 일본 제국주의 침략은 부산 초량왜관을 교두부로 삼으면서 시작됐다. 역사적으로 부산은 일본이 한반도 침략할 때 교두부로 삼은 통한의 땅이요, 침략의 거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부산에 육일기가 들어왔다. 그냥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일로 예정된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인 아태순환훈련에 참여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달려서 부산 앞바다에

### 유정주 “역사인식 저열...정부여당 문제삼지도 않아”

서 펴려고 있다”며 “아무리 역사인식이 저열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 그 누구도 문제삼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부대표는 “국방부 답변이 더 가관이다. 깃발이 육일기와 형태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육일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미 지난해에도 ‘일본 자위함기는 육일기와 형태 좀 다르다, 형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자위함기라고 생각한다’고 한 바 있다. 일본의 육일기 홍보 자료를 보면 ‘해상자위대 자위함기와 육상자위대 자위대기는 육일 모양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당사자인 일본은 같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다르다고 주장하는 희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한편에서는 과거 침략의 상징이 부산앞바다 들어온 거에 대해 아무말 않고 두둔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음주 화요일 6월6일은 현충일이다. 조국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현충원 참배할 예정인가. 국방부 장관도 참배 예정인가. 순국선열의 면전에 당당히 고개 들고 가실 예정인가. 참 부끄럽다”고 보

했다. 장철민 원내부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의 국회 보고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시찰단 일정이 끝나고 남은 건 물음표 밖에 없다. 시찰단 대부분 일정이 불투명하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 투명성과 부처검증 등 어떤 부분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께서 일본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왔는지 묻고 있다. 시찰단이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활동을 하는지 일본에 면죄부 안겨주는 들러리 역할을 하고 돌아왔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정부여당은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를 과장으로 치부하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 하는지 국회 보고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슨 숨길 게 있어서 국민의힘만 시찰단 보고 받고 보여주지식 대국민 보고만 하나. 여야가 공동으로 검증해야 한다. 시찰단 결과를 하루라도 빨리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선욱기자

## 강재현 여수시의원 “여수국가산단 역사·홍보관 및 향토관 건립 필요”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지난 2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지역·기업 상생 및 산업단지 관광자원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여수국가산단 역사·홍보관 및 향토관 건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재현 여수시의원 주최로 열린 도·시의원, 여수시·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 관계자, 전남도·시 정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문영수 전남대학교 교수는 산단 이미지 개선과 위상 재정립, 여수산단의 산업 역사 보존·관리, 산업관광 확대, 이주민 역사 기록·관리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주중섭 도의원은 “기념관은 옛일을 되돌아 보고 추억하는 공간이며, 역사관은 과거와 현

재를 연결하고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노력을 담은 공간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신 여수시·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여수산단 시찰을 희망하는 방문객은 많으나 홍보관이 없어 제대로 된 산단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단 체험 및 이해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범 이주민 대표는 “산단 조성 과정에서 주민이 고향을 떠나며 선조들과 가족, 이웃 등이 남긴 흔적이 모두 사라져 아쉬움이 많다”며 “향토 역사관을 만든다면 이주민의 작은 고향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대희 여수YMCA 사무총장은 여수산단 전시관 건립 시 산단역사관, 화학체험관, 생산경제관, 환경안전관 등 종합적인 전시관 건립이 필요하며,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 여수산단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 산단지원팀장과 여수시 산단관리팀장은 여수국가산단 역사·홍보관 및 향토관 건립 및 방문객 증대를 위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